

올해 첫 자율관리어업 광역워크숍 개최 전남지역 공동체 위원장 등 160여명 합동교육... 올해 총 6회 개최 예정



올해 6번 개최 예정인 자율관리어업 광역 워크숍 중 처음으로 전남지역 워크숍이 지난 3월9~10일 보성에서 1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워크숍을 마치고, 공동체 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한국수산업회는 자율관리어업의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남지역 광역 워크숍을 지난 3월9~10일 1박2일 일정으로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후원으로 열린 이

번 워크숍에는 전남지역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을 비롯, 일선에서 자율관리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수협 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해 합동교육 형태로 실시됐다. 농수산부에서는 손재학 어

업지원관이 참석해 어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의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책소개와 함께 현행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분임토의가 있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된 성공사례 경진대회(지역예선)에서는 전남관내 각 수산사무소에서 추천된 6개 공동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목포 도목 전북공동체가 우수상, 고흥 화도공동체가 장려상을 수상해 전국대회 본선진출권을 획득했다.

한편 한국수산업회는 올해 총 6회에 걸쳐 광역단위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두 번째는 지난 3월23~24일 경북 울진 한화리조트에서 동해안 지역 공동체 위원장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어촌계장협의회·수산업설명회 여수수산물기술사업소



전라남도 수산물기술사업소 여수지소(소장 임여호)는 지난 3월16일시 여수지역 전 어촌계장 120명을 초청해 '어촌계장협의회 및 수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수산물기술사업소 어촌계장협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단위조직인 지역 어촌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해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기술개발 현황이 소개됐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달리는 수산정책' 등 어업인들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주요 수산시책도 설명했다.

장태평 장관, 여수 적금 자율관리공동체 현장 방문

3월19일 전남대에서 수산업경영인 500여명에게 특별강연도 가져



지난 3월19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여수 적금 공동체를 방문, 박종길 위원장으로 부터 공동체 추진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장 장관이 수행 공무원들과 함께 적금공동체 해상팬션을 둘러 보고 있는 모습.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월19일 여수 적금 자율관리공동체를 비롯한 여수 새고막 양식장 등 전남지역 어업현장을 방문하고, 어업인들과 대화의 시

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4면> 장 장관의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4주 연속 수산현장 방문으로, 앞으로도 어업현장을 방문, 수산업의 현안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적금 자율관리공동체는 '06년부터 마을어업 및 양식어업등의 자발적인 어장관리 노력을 통해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이뤄 지난 '09년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장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어촌사회에 자율관리공동체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장 장관은 이날 전남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전남도 수산업경영인 워크숍'에 참여, 500여명의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수산업·어촌 르네상스를 위하여'란 내용의 특강도 가졌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이동민원실 운영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3월부터 관할 어업인 단체나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현장의 다양한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접수하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개설, 운영한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어업인이 요청할 경우 월명기 또는 기상특보 등 어업인 정박기간을 활용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외에 영세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노후 전기시설 수리, 소형선박 점검 등 각종 지원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www.korfish.or.kr

“한국수산업회가 수산업 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수산업회는 수산단체의 연합체 성격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1 어업분쟁조정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분쟁조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수산물시장 www.fishsale.co.kr

농림수산식품부 지원하에 비영리로 국내산 수산물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수산분야 컨설팅

수산분야 경영관리, 생산기술 등 수산전반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전남지역 광역 워크숍 분임토의 주요내용

공동체 평가시 현장점검에 의한 평가부분 마련 필요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감안해 육성사업비 지원을 조정

지난 3월9~10일 1박2일 일정으로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전남지역 광역워크숍에는 자물관리이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동체 위원장들은 4개조로 편성돼 발전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가졌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이다. <편집자 주>

□ 공동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물관리 공동체 세부 평가기준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의 공동체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또 평가시 문서에 의한 평가 뿐 아니라 지역담당자의 현장 점검에 의한 평가부분도 마련될 필요(문서 80%, 점검 20%)가 있다.

이밖에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율이 현재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형편을 감안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20%씩 균등하게 조

정해 주었으면 한다.

□ 자원남획 방지방안

금어기 및 금지체장 포획 수산물을 수협에서 위판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그물코 상향 조정은 공동체 자체적으로 정하되, 자원 보호령에 명시된 금어기간을 초과하여 공동체가 금어기간을 지정·운영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막·바지락 채포 금지시기 설정관련

고막은 어업인 스스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7~8월에는 채취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금지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바지락도 5~7월중 6월 한달만 금지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채포 체장제한은 고막의 경우 20mm, 바지락은 16~17mm가 적당하다.

□ 기타 공동체 발전방안

육상에서 우수기때 다량의 오염원이 바다로 밀려와 갯벌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해안가 마을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육지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 품목은 7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어업인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친환경 인증처리기관을 기존의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아닌 각 지역별 수산사무소 지소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또한 양식어장 휴식년제 의무적 도입 및 이에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3월9~10일 열린 전남지역 광역워크숍에서 공동체 위원장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자물관리이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010년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수협중앙회, 어업인 장비 구입비 부담 경감 기대

수협중앙회는 2010년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유류비 절감 유류절감장치 △기관대체 및 장비·설비 설치 등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이 사업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 국고보조금 39억원과 지자체보조금 39억원, 어업인부담금 52억원 등 총 130억원 규모의 '2010년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수협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용자사업으로 진행해 온 기관대체 및 장비현대화사업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관련 기자재 구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어업인은 장비 구입가격 가운데 4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30%)와 지방비(30%)에서 각각 절반씩 지원한다. 이들 장비는 수협과 계약을 체결한 40여 업체에서 공급한다.

수협은 향후 유류절감장비를 포함, 수협이 공급하는 각종 기자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도 제작해 어업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 해녀 지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잠수병 치료 다각적 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 잠수어업인(해녀)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제주특성을 반영, 제주대학교에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 3개과정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녀반'을 2009년부터 개설 운영하고, 2010년도에는 약 50여명, 2억원(국고 30%)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10년도 해녀지원 사업 등으로 주활동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종묘매입방류, 인공어초 등), 잠수진료비, 어장정화 지원 등 수산분야 34개 사업에 210억원(국비 11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5,000여명의 제주 해녀들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고된 작업으로 인해 발병되는 고질적인 잠수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등을 위해 2006년부터 18억원(국고 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잠수병 전문치료기인 챔버시설을 각각 1대씩 설치 지원해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잠수어업인은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2,000여명이 활동중이나 이 중 제주 잠수인이 5095명으로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종자전쟁 대비 전남 슈퍼 김 1호 개발

해남 수산사업소, 시험생산 거쳐 양식어가에 분양키로

김 신 품 종 명 명 식

2010. 3. 3(수) 16:00 전라남도



전남 슈퍼김 1호 신 품 종 명 명 식이 지난 2월3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김충식 해남군수,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전남도가 지난 3월3일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고유 신 품 종 김 '전남 슈퍼 김 1호'를 개발, 명명식을 갖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벌어질 종자 전쟁에 대비키로 했다.

전남도가 국내 고유 신 품 종 개발에 나선 것은 오는 2012년 1월부터 국제식품품종보호동맹(UPOV)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 김 양식어업인들이 사용하는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우려가 높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각종 김 품종은 일본 품종이 대다수로 해조류 종자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될 때 내년부터 이에 상응한 종자 사용 로열

티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해남지소는 종묘 개발 프로그램 전략에 따라 지난 10월 채묘한 전남 고유종묘를 관내 3개 시험어장을 통해 기존 품종보다 생산성이 높은 신 품 종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해남지소측은 이 고유종자에 대해 앞으로 1~2년 시험생산을 걸쳐 일반 양식어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 슈퍼 김 1호'에 대해 특허를 신청, 빠르면 6월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39억원 융자 지원

경남 수산기술사업소는 201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39억원을 관내 수산업 경영인 84명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6억원 보다 8%로 증액된 금액이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종류별로는 어업인 후계자 60명 24억원, 전업경영인 20명 11억원, 선도우수경영인 4명 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어업인후계자 4천만원, 전업경영인 5천6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억원 등이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 구입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있으며, 증·양식어업은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 및 양식 기자재,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2010년도에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고 자금지원이 확정된 사람에게 한해서 지원됨으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산업경영인은 사업소 및 사무소에 사업추진실적(계획)을 제출하면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기고

공동체 리더의 추진력이 성공의 열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됐다. 2011년 63개소에서 2010년 3월 현재 758개소로 시작년도 기준 약 12배로 증가추세를 보여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형적인 성과 못지않게 내실화가 중요한데, 활성화된 공동체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리더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자율관리어업은 공동체의 리더의 역량과 추진력에 비례해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차원의 리더 양성교육 확대 필요

공동체 리더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 어촌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젊고 활동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리더 양성교육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동체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많고 서로 생각이 틀릴 때는 여러개의 무리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때는 여러개의 작은 팀(분과위원회)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자율관리어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위해 빠른 속도만 생각하면 곧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율관리어업은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또 훌륭한 리더는 공동체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사소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때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는 리더의 임기만료로 인한 교체 시기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향이 많다. 이는 리더 혼자서 독단으로 공동체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자율관리공동체는 혼자만



이삼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기술보급과

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의 강한 의지 및 구성원의 신뢰 요구

자율관리어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어업질서가 형성되어 불법어업을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한편 우수공동체로 선정돼 부과적인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수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지만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정부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공동체가 더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체는 리더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회

의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리더를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며, 목표점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세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동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는 전략적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후 시작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는 성공에 필요한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켜 실수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끝으로 사업의 목적을 항상 주시하는 한편 정보와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은 리더의 강한 의지와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업이다. 전국 연안의 모든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을 가지고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여 자원회복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삼·가리비 침하식 양식기 특허 출원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허필중 소장)는 2010년도 연구교습 어장 운영에 따른 해삼·가리비 침하식 양식 특허, 디자인을 출원해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양식법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내 주요양식 품종인 우렁쉥이가 이상해황 및 고수온 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 이를 대체해 양식할 수 있는 품종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삼의 채룡식양식과 육상양식을 병행 사업을 추진했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대량폐사와 해상채룡식 양식어장 먹이공급 어려움으로 인한 폐사가 발생되어 지난해 종료,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양식기를 개발했다.

종(2m), 횡(3m)으로 이루어진 프레임과, 프레임의 모서리에 볼트, 너트가 결합된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연결고리와, 프레임에 형성되는 그

물로 이루어졌다.

양식기에 해삼, 가리비를 한 공간에 같이 넣고 줄을 연결해 해저 바닥에 침하시켜 양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는 새로운 양식방법으로 개발한 환경친화형 침하식 양식기를 이용, 해삼을 수용하고 2개월 운영한 결과 성장이 아주 우수하게 나타나 이번에 특허출원과 디자인출원을 특허청에 신청하게 됐다.

앞으로 연구교습어장 해삼 시험양식을 통하여 우렁쉥이 대체품종으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어장휴식년제 도입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로 경쟁력 강화 및 특화품종 발굴로 지역 양식 모델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귀어가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접수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남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해 귀어가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월31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005년 1월1일부터 사

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55-649-0622)

‘양식장 휴식년제’ 도입 추진

오는 6월 어장관리해역 지정 ... 2012년부터 시범 실시



정부는 어장오염 방지 및 바다 복원력 향상을 위해 ‘양식장 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시험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양식장이 설치된 연안 바다의 오염을 막고 바다의 생산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휴식년제’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식장 휴식년제는 미역이나 김 등 해조류를 기르는 양식장이나 넙치 등을 키우는 연안 바다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양식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양식장 사업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양식업을 쉬도록 함으로써 연안바다의 오염을 막고 자연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이런 양식장 휴식년제는 어장관리법에 근거규정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남 완도군이 일부 시행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양식장 휴식년제가 이르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

망이다.

휴식년제가 시행되려면 우선 해당지역을 어장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어장관리 해역은 양식장이 밀집한 남해안이 우선 지정돼야 하지만 지금은 서해안에 한곳이 지정돼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2010년 1월 어장관리해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 이어 6월까지 어장관리 해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4월 양식장 휴식년제 시행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2년 일부 해역에 대해 시범 실시를 한 뒤 이르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식장 휴식년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책과 보상책이 함께 마련돼야 함으로 제도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탐방 / 여수 적금 자율관리공동체 ◆

자율관리어업의 나아갈 길, 적금 공동체가 '모델'



박종길
적금 공동체 위원장

적금 공동체의 해상펜션 위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을 화제로, 장관과 어업인의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현직 농수산 행정의 수장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직접 공동체를 방문해 추진사업을 살펴보고,

성과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 그만큼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전국연안에 700개가 넘는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적금 공동체만큼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장관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곳을 방문한 것은 바로 적금 공동체를 '모델 케이스'로 삼

지난 3월19일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공동체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본부 및 수산과학원의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방문했다. 꽃샘추위로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아 다른 공동체에서도 이를 본받아 주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 아닐까.

“기존 어촌계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분야별 책임제 도입의 주식회사 형태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연로한 구성원들을 설득해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하여 부가가치를 높히게 주효했다고 봅니다.”

적금 공동체를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육성하는데 으뜸 공로자인 박종길 위원장(51)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환경개선과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에 우리 수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한다.

2005년 기존 어촌계에서 공동체로

지난해 공동체 가구당 4,500만원씩 배당 폐교 사들여 체험교육장으로 활용 계획

전환할 당시 어촌계원 1인당 지분이 불과 120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어촌체험장 운영과 해상콘도사업 확충 등으로 금년 1월 공동체 자산평가 결과, 공동자산은 59억여원으로 회원 1인당 지분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2008년 공동체 가구당 1,800만원 지급하던 배당금을 지난해에는 4,500만원씩 배당하고, 수산물 생산에 참여한 인건비로 가구당 2,000여



3월19일 장태평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적금 공동체를 현장 방문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관련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위)

적금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해상펜션.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일 15만원. 현재 5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약이 밀려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사진 아래)

만원의 소득도 올렸다.

이같은 적금 공동체의 성공요인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동어장의 분과별 책임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어촌계의 경우 계장이 자금관리, 회계, 사업을 혼자서 하다보니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금 공동체는 구성원을 자금·어장·살포식·유어장·어선업분과 등으로 세분화해 책임제로 운영한 결과, 회원간 결속

력이 소득증대로 이어졌다는 것.

박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수산업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적금 공동체를 자율관리어업의 산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마을에 있는 폐교를 사들여 현재 체험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다. 조만간 적금 공동체의 체험교육장이 수산업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돼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

2010년 자율관리어업 전남지역 성공사례 경진대회

마른우럭가공통해 유통구조 개선 도모

우수상 흑산도 도목 공동체



도목공동체는 마른우럭의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신안군 관내 어촌계와 공동으로 우럭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위치한 도목 자율관리 공동체는 마을어업과 어선어업을 함께 하는 복합어업 공동체로 현재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 지난해의 경우 어가평균 9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 '06년 공동체 결성 이전에는 평균 2천여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이 공동체의 어업권은 어류 15.5ha, 패류 7ha, 다시마 7ha, 마을어업 38ha 수준으로 공동체 결성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불법어업과 자원남획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막기위해 '06년 공동체가 결성되면서 불법가두리 3ha(60조, 240칸)을 철거하고 5ha(100조, 400칸)에 이르는 무질서 가두리 시설도 정비했다.

공동체 결성이후 자원조성을 위해 전복 15만미('06~'09), 해삼 5만미('09), 우럭 100만미('06~'09) 등 종묘방류에 힘을 쏟는 한편 어부림(다시마) 조성했다. 채포금지 체장도 강화해 전복은 7cm에서 9cm, 기준이 없던 해삼은 15cm, 우럭은 25cm미만은 채포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소득증대를 위해 연간 1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마른우럭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400평 규모의 사료저장 냉동창고도 마련해 안정적인 사료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자담 10억이 투입된 이 냉동창고의 연간 사료저장량은 1만톤에 이르고 있다.

유통관리개선을 위해 신안군 우럭영어조합법인체 결성을 주도, 현재 10개 어촌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하남, 부산 등 18개소에 마른우럭 판매를 위한 직거래 판매망도 구축하고 있다. 금년에는 신안군 우럭주식회사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공동체에서는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7월 완공목표로 600평 규모의 배합사료 공장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100평 규모의 우럭 가공공장도 마련, 마른우럭의 브랜드화를 통해 부촌의 꿈을 키우고 있다.

전국 최초 무지개송어 해상가두리양식 추진

장려상 고흥 화도공동체



화도 공동체는 국내 처음으로 무지개송어 등 담수어종의 해상가두리양식을 추진, 새로운 회 문화 조성에 도전하고 있다.

전남 고흥 상화도와 하화도가 형제처럼 떠 있는 아담한 섬마을에도 자율관리어업이 꽃을 피우고 있다. 두 섬은 매일 물갈림으로 하나의 섬이 되고 있지만 '08년 자율관리 공동체 결성 이전에는 두 마을로 구분돼 갈등도 적지 않았다.

공동체가 구성되면서 마을어장도 위탁관리에서 회원들의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로인해 어가평균소득도 '08년 1천8백만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2천3백만원으로 늘었다.

그동안 자원관리를 위해 바지락(4cm), 민꽃게(7cm) 등 주요품종에 대한 채포금지 설정을 비롯,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투석사업에 힘을 쏟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마을어장 10ha에 바지선 3척 분량을 투석한 결과, 가시파래, 민꽃게 등의 자원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 자연산 굴 생산량이 크게 늘어 '꽃섬돌굴'이라는 브랜드로 명품화를 시도해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다.

이와함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담수어종의 해상가두리 시험양식도 추진하고 있다.

고흥수산물기술사업소의 기술지원을 받은 화도어촌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담수어종인 무지개송어와 산천어의 해상가두리양식에 착수, 연내 출하를 앞두고 있다. 향후 지역축제시 2개 어종의 무료 시식회 등을 통해 새로운 회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4월 새고막 치패를 마을어장에 살포, 처음으로 새고막 양식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전복 바닥양식 시험어장도 운영중이다. 새고막은 금년 4월 첫 수확 예정이며, 지난해 연말 3만마리의 치패를 살포한 전복은 오는 '12년 말경 채포해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